

# 높고 낮음, 앞서고 뒤섬이 이끌고 받쳐주는 세상돼야



있고 없음은 서로를 낚아주고,  
쉽고 어려움은 서로 이루어주며,  
길고 짧음은 상대를 드러내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 다하게 하며,  
음과 소리는 서로 화답하고,  
앞과 뒤는 서로 뒤따른다.

- 가을저녁에 목회 일에 헌신하고 있을 노일경 목사에게

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규경하고 복음서하고 비슷하지 않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견주어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스님은 종교에 대해 생각이 자유로우세요. <일기일회>인가요? 스님 법문집. 거기서 '종교란 친절이다.'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인 용서, 친절, 사랑과 스님 말씀이 하나로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 스님과 만남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종교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도, 싸울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면 고백 문제이고, 자기 지향 문제로 서로 처지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를 뿐이지요. 모두가 친구가 되는 일이 자비이고, 사랑일 텐데 굳이 엇나갈 일은 없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스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구요."

어느 해 부부가 불일암에 막 들어서는데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노일경 목사는 "아니, 스님 무슨 공부하셨어요? 독경하셨어요? 아직도 초보운전이세요?" 하고 농담을 던졌다. 그랬더니 법정 스님이 허허 웃으면서 "더 초보운전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국어책을 읽었지." 하였다.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확인해보니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전통이 있더군요. 모든 종교 전통을 훑어 올라가보면 소리 내어 낭송을 하잖아요. 그게 말로 올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종교 기본훈련임을 알았죠."라며 기억을 되살리는 노일경 목사. 선선한 눈매에 스님을 향한 그리움이 진하게 묻어난다. 스님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읽었다는 말씀은 나그네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야기를 들으며 스님이 수계를 받은 하얀해 해제 날이 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늘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초심을 되살린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긴 세월 동안 일 년에 한 두 차례 만남은 주로 어디서 했을까? "스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도 되고, 시내 나오시면 뵈기도 했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두어 번 찾아오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제가 없어서 뵈지 못했어요. 오셔서, 불교에는 도량을 돌면서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을 해주고 가셨더라고요." 도량적이다. 노일경 목사가 있는 시골 교회 도량석을 하면서 스님은 어떤 축원을 하셨을까?

93년 법정 스님은 노일경 목사 부부에게 선행 수련회에 동참해보라고 권하셨다. 스님 말씀에 따라 노 목사 부부는 일주일 동안 송광사에서 선 수련을 했다. 이 일이 노일경 목사가 평소 자기 종교에 대해 느꼈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 선 수련이 단순한 수련이 아니구나.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존재 중심을 찾아가는 수양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개신교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깊이 있는 수행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새벽기도를 한다든가 심일조를 드린다든가 주일을 성실하게 잘 지키면 마치 교인 본분을 다한 양 여길 뿐. 자기 관리, 내면 문제나 상처를 보듬기 위한 수행과 성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게 늘 아쉬웠어요. 기도원 가서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면에

불이락이에는 아직 일러 따사로운 햇빛이 반갑고  
그리운 2월 중순 오후. 한신대 음악감상실에서 만난  
월곡교회 담임 노일경 목사(55)는 법정 스님이 보내  
주신 글이라며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씀을 잔  
잔히 읊는다. 반쯤 감은 그윽한 눈에 스님이 가득했다.  
"목회란 높고 낮음, 앞서고 뒤섬이 서로가 이어  
져있음을 일깨워주는 일이지요. 저는 개신교가 추  
구하는 성장 동력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지만,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과연 지금 추  
구하는 성장이 바람직한가? 작으면 작으면 크면  
크면대로 공동체들이 자유롭게 행복을 찾아가려면 어  
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보면 어느새 스님이 주신  
노자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요." 앞뒤나 높낮이, 음  
과 소리가 어우러져서 서로 이어주고 받쳐주는,  
세상 받든 면목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이 목회라는  
말씀이다.

법정 스님은 언제 처음 보였을까?  
"스님은 우리한테는 그냥 좋은 어른이었어요.  
젊은 시절, 저희 부부가 아직 결혼하기 전, 5.18을  
겪은 지 서너 해쯤 지나 스님이 쓰신 책 <서있는

사람들>을 읽고 나서 가보았어요. 집사람이 스님  
을 워낙 따르고 존경해서 집사람을 따라. 스님을  
뵈러 가면서 시국은 어수선한데 당신 혼자만 이런  
멋진 앞자에서 홀로지내는 모습이 현실과 동떨어  
져 계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물론 불일  
암에 살기 전에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셨지만, 그  
뒤로 적극 나서지 않아 시큰둥함이 마음 한 켠에

### 장독 뚜껑에다 짐승 밥을

### 놓아둔 모습이 인상 깊어

깔려있었지요. 저는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기  
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아,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단정 짓는 버릇이 있는데다가  
별로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님은  
그런 저를 무장 해제시키셨어요. 편안했어요. 그  
래서 좋아했어요."

노일경 목사가 불일암에서 받은 첫 인상은 무척

가지런하고 깔끔했다. 암자 뒤에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있고, 부엌은 정갈하고 깨끗했으며, 후박나무  
옆에 '배배용 의자' 라고 일컫는 스님이 손수 장작  
으로 만든 걸상이 놓여 있었다.

"스님은 거기 앉아서 명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티내지 않고 격이 없는 스님 모습이 좋았어요. 우리  
도 특별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저 자연  
스럽게 보였죠. 종교 얘기는 거의 나누지 않았어요.  
집사람은 그때는 가톨릭이었고 저는 개신교 신학생  
이었는데..."

노일경 목사는 종교란 자기를 둘러싼 울타리고,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 따라 선택하게 된 문화 가운  
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종교란 살다보니까 주어진  
면이 많다고 봐요. 스님도 살다보니까 스님이 되셨  
을 테고, 저도 그렇죠. 처음 뵈는 스님은 세상에 대  
해서 초연하시고 약간 냉소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  
요. 암자에 있는 사물 하나하나가 모두 가지런하고  
정갈한 모습에 '아, 이렇게 사는 분도 있구나.' 싶었  
죠. 특히 화단에 장독 뚜껑 앞에서 짐승밥을 까치밥  
주듯이 놓아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 뒤로 한 해

에 한 두어 번씩 보였죠. 삼십 년 가까운 세월을 그  
렇게 지내왔어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그 무엇이 긴 세월 동안 스  
님과 관계를 있게 했을까?

"좋아했죠. 서로, 아니, 저는 그랬어요. 뵈는 횟수  
가 늘고 나이가 들면서 깔끔하고 정갈한 스님 성정  
이 이해도 되고, '아,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쉬운 일

###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다

### 용서·친절·사랑이 하나로 통한다

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스  
님을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  
니 스님은 불교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를 꽤 오  
래 전에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학  
구열이 대단하시구나.' 하고 느꼈어요. 불교인이 볼  
때 어렵지 모르지만 젊어서 원전을 그렇게 풀어낼  
정도라면 학구파시잖아요. <법규경>을 번역하셨

##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중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광사

연등승강 장치인 찬덕불교가 신개발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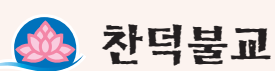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대한 성찰이 저희들한테 모자라는데 불가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진정 기독교인이나우려면 더 열려 있어야 하잖아요? 자비나 사랑이나 말이 다를 뿐이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죠. 교회에도 그런 전통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가톨릭에 '피정'이 있더라고요. 향심기도, 구심기도가 있고요. 유달리 약한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도 하자면 못 할 것도 없죠. 특별한 형식이 아니더라도 기도와 선도 맞물릴 수 있을 테고요. 일주일동안 발우공양을 체험을 해보면서 먹는 문화, 먹는 태도를 바꿀 대안이구나 싶었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불가가 가진 좋은 점들을 많이 느꼈어요."

**예수, 부처가 세월을 넘어 만났다면**

**열반이니 구원이니 논쟁을 벌였을까?**

노일경 목사는 시골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있는 서낭당을 보면서 생각한다. 서낭당은 민간무속문화인데 개신교에서는 왜 죄악이라며 깎아내리고 무시할까? "그런 민속은 우상숭배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일 뿐인데. 그 대상이 나무나 돌이 됐던 짐승이 됐던 사람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고마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들만이 정통이고 유일하다고 얘기하며, 종교를 빌미로 권력을 휘두르고 자본주의와 맞물려 탐욕스럽게 돌아가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개신교 행태가 외려 바벨탑 쌓기고 우상숭배지. 일반 사람들이 편가를 의지하고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상숭배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설교도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고 욕하도록 가르쳤는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저히 이방을 배제했던 까닭은 약소민족이 살아 남으려고 친 몸부림이예요. 상대를 철저히 배척해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기 종교, 아뢰 종교를 살아남게 하려는 몸부림과 우리가 오늘날 다른 종교를 대하는 자세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예요. 종교가 서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언젠가 '예수와 부처가 만났을 때'란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은 노일경 목사 '두 사람이 만났으면 어땠을까?' 상상해봤다고 말씀한다. 두 사람이 오백년 세월을 뛰어넘어 만났다 치면 한 눈에 서로를 알아봤을 거다. 상대가 고수인지들, 서로 진면목을 알아차린 두 사람이 과연 요즘 사람들처럼 자기 때거리를 몰고 와서 열반이니 구원이니 하면서 논쟁을 벌였겠느냐? 서로 법담을 나누는 좋은 도반으로 지내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를 했다. "그렇게 보면 불교와 기독교가 싸울 일이 없지요" 법정 스님과 노일경 목사가 스스럼없이 통하는 까닭을 알았다.

"스님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상가인지는 잘 모르지만, 받아들이기 쉬운 보통 말로 상식이 어긋나지 않게 편안하고 편견 없이 만나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큰 감동이나 감정 없이 스님을 만났고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 가운데 당신이 하신 말씀과 가장 닮은 사람. 당신 말처럼, 끝처럼 사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 했어요. '나도 멋진 글을 쓸 수는 있다. 그러나 저 어른은 글이 멋있음을 떠나서 글만 쓰는 대단한 양반이다'고. 어찌 보면 참 대단하고, 어찌 보면



월곡교회 노일경 목사는 법정 스님은 "항상 받아들이기 쉬운 보통 말로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편안하고 편견없이 만나셨다"고 회고했다.

그저 세상 이치에 맞게 살다 가신 어른이시죠. 그게 좋았어요. 바쁘든 바쁘지 않은 간에 내키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기 싫잖아요. 글을 잘 쓰는 유명한 분은 곳곳에 많으니까 굳이 법정 스님이 아니어도 되죠. 스님을 보면 스님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한나절 나누기도 하고, 서너 시간 동안 나누기도 했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상이나 인연 같은 이야기는 아니었고, 소소하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젊었을 때 같으면 저도 이야기 가운데서 뭘 끌어내려고 했겠죠. '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여쭙었을 텐데, 이런 그런 이야기가 싫고 좋은 어른 보였는데 편안하게.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이

것저것 물어댈 텐데 우리라도 편안하게 해드리자.' 싶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만히 들었고, 스님도 우리한테 그냥 일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 걱정도 해 주시고, 저희아들도 스님을 할아버지처럼 생각해 가끔 같이 찾아뵙곤 했죠. 서른 해 가까이 스님과 만남이 저희 부부에게는 복되고 좋은 일이었어요." 잔잔하게 털어놓는 노일경 목사 말씀을 들으며 이들 부부에게 살짝 부러움이 일었다.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꽃 보고 깨달아**



강산에 꽃이 피었다. 눈꽃이 놀다 간 자리에 야윈 꽃이 피었다. 꽃은 무슨 선업을 지었기에 만민에게 기쁨을 주고 있을까.

기약 없이 이별한 지난 봄을 생각해 보면 더욱 신기하다.

이듬 해 그 절기가 되면 영락없이 그 자리에서 봄의 전령이 되어 우리를 반긴다. 그들의 세계에서 어느 누가 환생을 발원하는 변변한 지노귀새남인들 지냈을 리 만무하다.

꽃은 암술 · 수술 · 꽃잎 · 꽃받침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분류 기준으로 보면 무피화(無被花) · 유피화 · 갖춘꽃 · 안갖춘꽃 · 통꽃 · 갈래꽃 · 풍매화(風媒花) · 충매화(蟲媒花) 등으로 나눈다.

산행길에 꽃의 다양한 색깔이 발길을 잡는다. 왜 진달래꽃은 붉고 개나리꽃은 노란색을 띠고 있을까.

아마 그들은 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 일 것이다. 업이 다르다 하여 이쪽의 업이 상대편 업을 맞한다거나 나누라지는 않는다. 각각 그 모습 그대로가 좋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를 인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찾는 무리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법상에 올라, "여러분, 온갖 길고 짧은 것은 모두 무상으로 돌아가요. 사시의 초목이 잎 지고 꽃 피는 것만 보시오. 인과가 끝날 무렵에 삼악도의 고통이 나타나면 털끝만치도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고 오직 뿌리와 꼭지인 의식만이 항상 남아 있소."

이 때 한 남자가 물었다. "어찌하여야 생노병사를 벗어나겠습니까?"

영운은 대답했다. "청산은 원래 요동이 없는 데 백운이 떠서 오락가락 한다."

또 한 남자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선사는 "나귀의 일이 끝나기 전에 말의 일이 도래하였다"라고 하였다.

인생사 모두 여사미거마사도래(驢事未去馬事到來)가 아닐까. 하루 일을 보아도 그렇다. 아침에 이 일만은 오늘 중으로 꼭 마쳐리라고 다짐하지만 하루해물 넘기고 마는 일이 다반사다. 시간에 속고 일에 치이고 상황에 속아 넘어가고 만다. 그러나 여간해서 속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할 약속이 없었다 해도 그

**진달래꽃 붉고 개나리꽃 노란 것은 업 때문  
업 다르다 탓하지 않아... 그대로가 좋을 뿐**

봄날 산길을 걷다가 복사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기연이 되어 깨달은 선사가 있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11에 영운지근(靈雲志勤) 선사이다. 그는 북주 장계(長溪) 사람으로 처음에 위상에 있으며 30년 동안 화두를 참구했으나 깨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 날 언뜻듯한 산길을 걷다 30년의 의심덩어리가 뽕뽕 타파 되었다. 선사는 그 때의 심경을 시로 썼다.

삼십년래심검객 三十年來尋劍客  
삼십년 동안 마음의 검을 찾던 나그네  
기회낙엽우추지 幾回落葉又抽枝  
몇 차례나 잎이 지고 싹이 돋았던가  
자종일건도화후 自從一見桃花後  
복사꽃이 피어 있는 것을 한 번 본 뒤에  
직지여금강불의 直至今今更不疑  
다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졌다네

위산영우 스님이 이 계승을 보고, "인연 따라 깨달은 것, 영원히 잊지 말고 간직하여라" 하였다. 그 길로 민천(閔天)으로 돌아가니 현묘함을

해 그 때가 되면 어김없이 봄은 찾아온다. 대신 불약(不信不約)이라고 했다. 위대한 믿음은 약속을 하지 않는다. 절기 같은 것이다. 그 절기가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인간의 약속은 그렇지 못하다.

영운 선사와 같이 이 봄에 기연을 맞자. 기연은 차별심이 없고 분별을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기연의 주체는 오직 자기 자신이다. 기연이란 시기인연(時機因緣)의 줄인 말이다. 범어로 kāla-āsaya라고 한다. kāla는 '순간' 혹은 '시간'이란 말이고, āsaya는 '쉬다', '멈추다' 혹은 '마음의 정리'라는 뜻도 있다. 이 말의 뜻을 정리해 보면 '어느 한 순간에 당면한 문제가 마음에 정리가 된다'는 뜻이고 다른 의미로는 '한 순간에 쉬게 된다'는 말이 된다.

생경전쟁에서 쫓기다가 멈춘다는 말은 대열에서 처지는 것만은 아니다. 쉬고 멈추는 행위는 국면을 전환하는 자력의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이 좋은 절기에 꽃을 보고 청산을 보고 유수를 보자.

동국대 선학과 교수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선의 알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후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읍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 5월 12일 <마감임박>  
미얀마로 떠나는 원전일주 8일 (짜이티오 철이기도 가능)  
1,900,000원  
양곤 | 바간 | 민달레이 | 해호 | 짜이티오

■ 5월 24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해호 6일

\* 모두 포함된 일정 추가요금 없음

■ 지장도량 - 황산 6월 8일  
구화산 | 황산 | 향주 5일  
1,090,000원

■ 지장도량 - 관음도량 6월 7일  
구화산 | 보타산 | 황산 6일  
1,14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  
하늘역차 티벳 8일 6월 15일 (요금 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 미얀마, 중국, 소리아카, 인도, 티벳 ]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파이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평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빙 안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ALAJA  
이사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